한화투자증권

경제 임혜윤
hylim@hanwha.com
3772-7728

Hanwha Macro Monthly

2% 성장 시나리오

12
2025

"우리 정부가 첨단산업 투자를 강조하면서 확장재정 기조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정부지출 확대와 민간부문 회복에 힘입어 2%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지만, 재정여력 약화는 잠재적인 부담입니다."

| 2025년 12월 15일 |

Contents

I. 핵심요약 03

II. 2% 성장 시나리오 04

강해지는 재정자극 04

정부가 주는 힌트 06

확장재정의 득실 08

2026년 성장경로 10

III. Hanwha's Macro View 12

IV. Economic Calendar 24

I. 핵심요약

재정자극 강화

2026년 예산안이 확정됐다. 총지출 규모는 727.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는 8.1%, 추경을 포함한 예산보다는 3.5% 늘어났다. 예산안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R&D 예산은 2024년보다 약 9조원 증가해 올해 예산 대비 증가율과 증가폭 모두 최상위권이다.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투자를 장려하는 기조가 명확하다.

핵심은 첨단산업 기술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같이 보면, 정부의 생각을 보다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8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R&D와 산업/중기/에너지 지출 증가율 상승이 두드러진다. R&D에서는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방위력 개선, 산업/중기/에너지에서는 창업 및 벤처와 산업혁신지원 부문을 강조한다.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이 핵심이다.

확장재정의 득실

올해 성장 둔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를 감안하면, 내년 재정지출을 늘리는 선택은 일정부분 타당하다. 다만, 늘어난 지출로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되고 있고,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확장재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낮은 정부부채 비율이나 양호한 재정수지를 확장재정의 근거로 내세우기 어렵다.

2% 성장 시나리오

내년 한국은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견조한 반도체 수출에 더해질 非반도체 수출, 재정자극 강화, 글로벌 제조업 반등에 따른 투자 회복 등이 2%대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기저효과가 반영될 상반기에 높고, 전기대비 성장률은 2/4분기와 3/4분기에 0.5%를 상회할 전망이다.

Ⅱ. 2% 성장 시나리오

강해지는 재정자극

2026년 예산안 확정

2026년 예산안이 확정됐다. 총지출 규모는 727.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는 8.1%, 추경을 포함한 예산보다는 3.5% 늘어났다[그림1]. 여야 합의과정에서 신산업 투자(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와 민생경제(대중교통 요금 인하, 서민 이자부담 경감,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예산이 증액된 반면, 대미통상프로그램 등을 줄여 기존안 대비 지출이 추가로 늘진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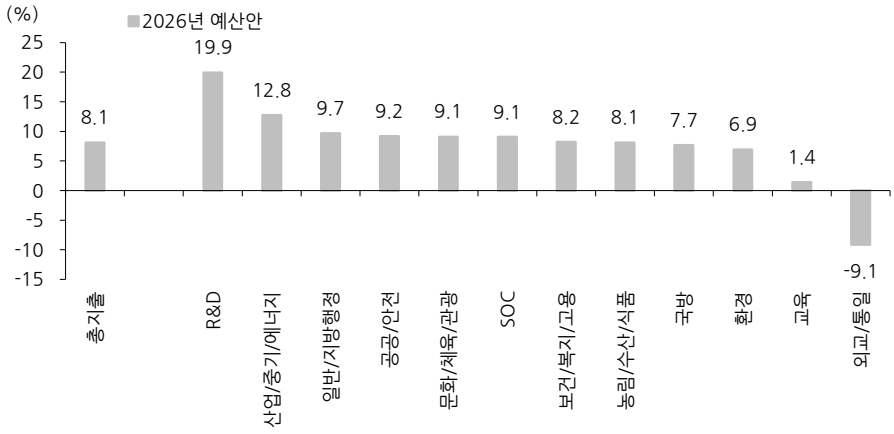
R&D 예산 증가율 최상위

내년 예산안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R&D 예산은 2024년보다 약 9조원 증가해 올해 예산 대비 증가율(19.9%)과 증가폭(5.9조원) 모두 최상위권이다[그림2].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투자를 장려하는 기조가 명확하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된다는 전제 하에 주요 선진국들과의 기술 격차 축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의무지출 부담 가중

의무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12대 분야 중에서 내년 증액 규모가 가장 큰 부문은 보건/복지/고용과 일반/지방행정인데, 이들 분야 증액분의 절반 이상은 의무지출이다. 일반/지방행정은 국고채 이자상환과 지방교부세, 보건/복지/고용은 공적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지출을 포함한다[그림6]. 20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재량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020년 46.0%→2025년 51.9%→2029년 55.8%). 이는 잠재적으로 재정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변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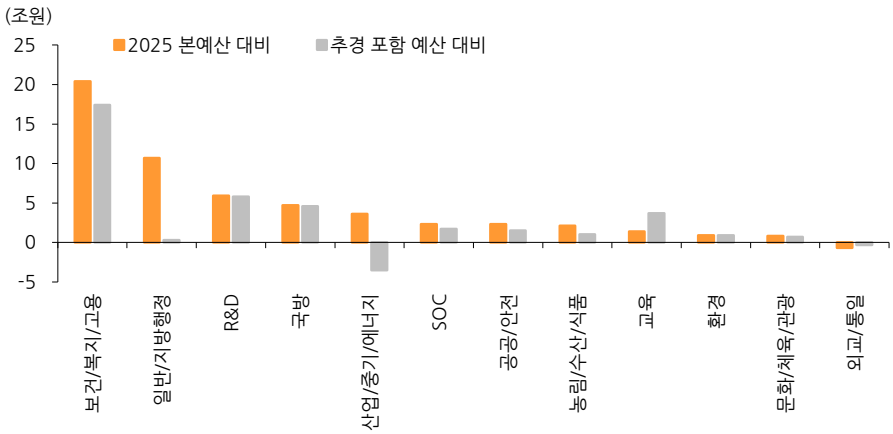
[그림1]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2026 년도 예산안



주: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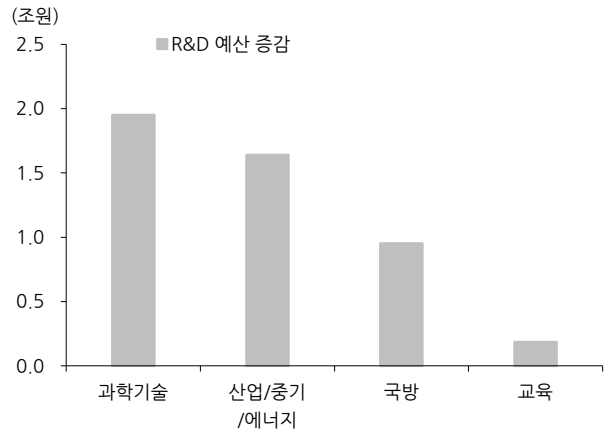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2026 년 예산안, 의무지출과 R&D 부문 증가가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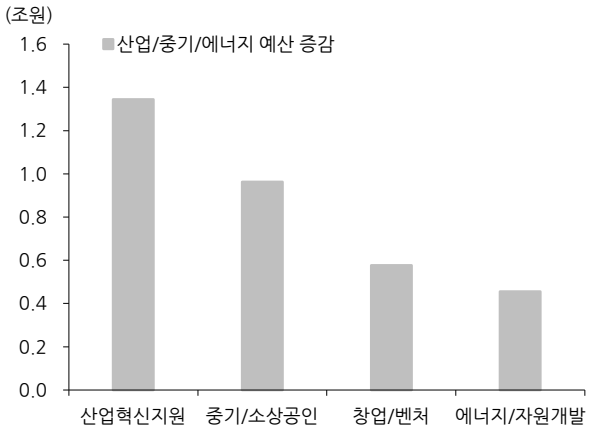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R&D: 과학기술 예산 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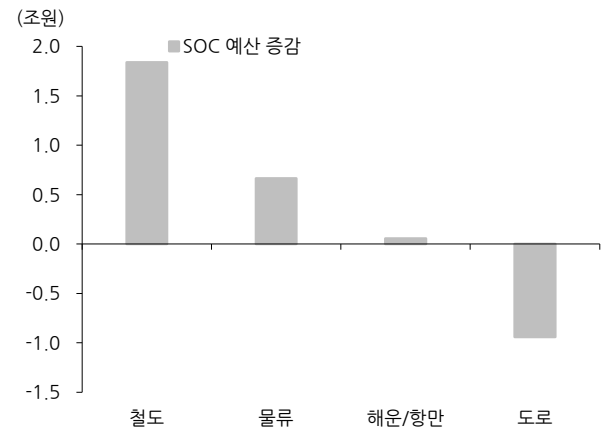
주: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산업/중기/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예산 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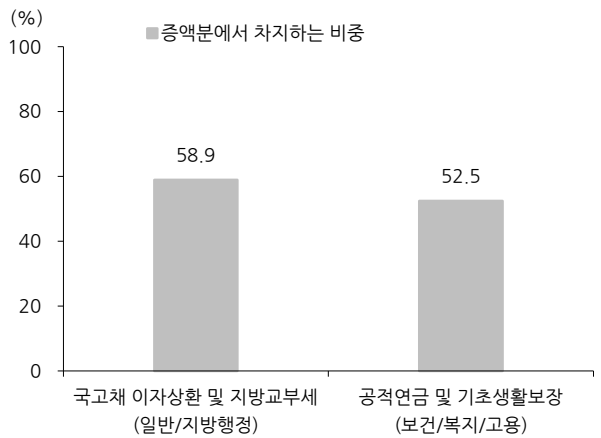
주: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SOC: 철도, 물류 예산 증액



주: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일반/지방행정과 보건/복지/고용: 의무지출 비중 높음



주: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가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부가 주는 힌트

2028년까지 확장재정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같이 보면, 정부의 방향성을 보다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우선 확장재정 기조가 강해진다. 총지출 증가율이 높아지고,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 FI)를 기준으로 해도 2028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강조

그 중에서도 R&D와 산업/중기/에너지 지출 증가율 상승이 두드러진다[그림7]. 지난 정부에서 감소했던 R&D 예산은 2029년까지 연평균 5.3% 증가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까지 높아진다[그림9]. R&D 예산을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 연구개발, 방위력 개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부문의 예산 증가폭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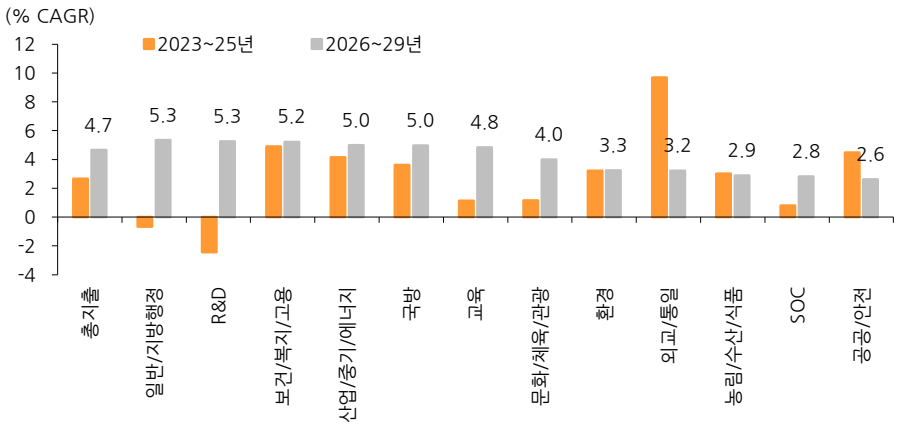
벤처와 산업혁신지원 강조

산업/중기/에너지에서는 창업 및 벤처와 산업혁신지원 부문 지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그림10]. 이들 부문 지출은 2029년까지 연평균 약 8% 늘어날 전망이다. 창업/벤처 부문에는 중소벤처기업 창업기금, 산업혁신지원 부문에는 산업경쟁력 기반 구축,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6000억), 산업경쟁력 기반 강화(5200억), 주력산업진흥(4670억),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1280억)는 올해와 비교해 내년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분야다[그림11].

핵심은 첨단산업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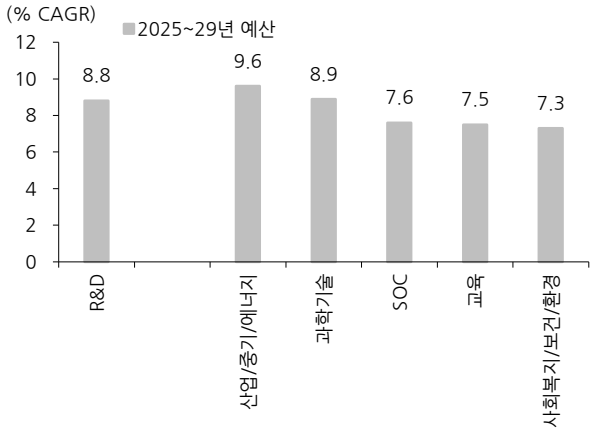
결국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콘텐츠(Contents), 방위산업(Defense), 재생에너지(Energy), 미래제조업(Factory) 이른바 ABCDEF를 6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이들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재 양성 기조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다.

[그림7] 지난 정부와 비교해 R&D 와 산업/중기/에너지 예산 증가율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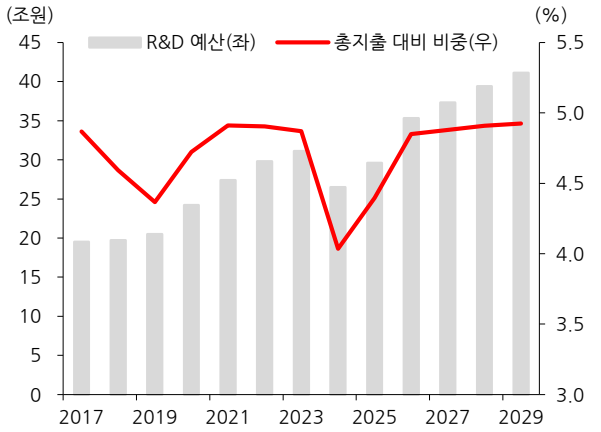
주: 2025년은 본예산, 2026년 이후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R&D 예산은 산업혁신 및 기술개발에 보다 더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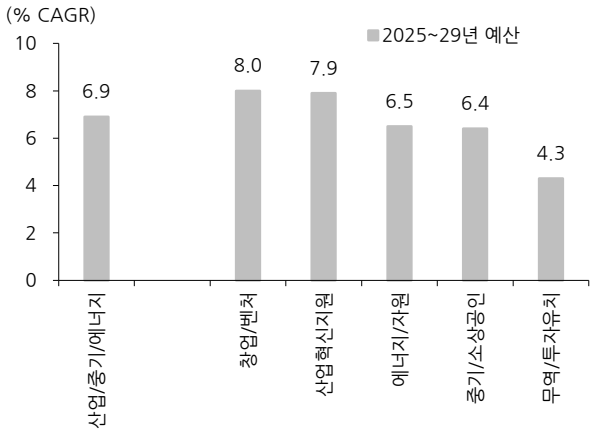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R&D 예산 비중 점진적으로 높아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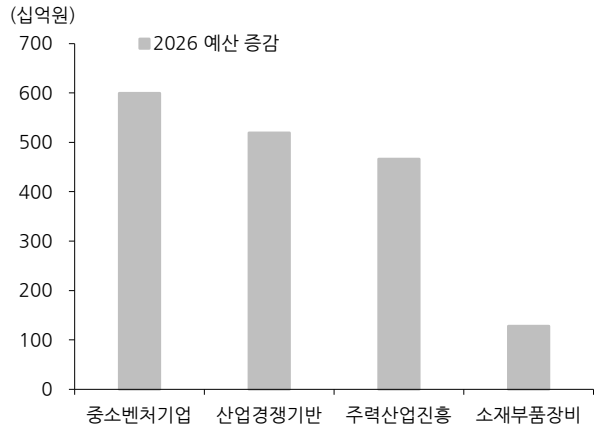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산업/중기/에너지에서는 창업/벤처와 혁신지원에 무게



자료: 기획재정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내년 벤처, 소부장 등에 대한 지출 확대 두드러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확장재정의 득실

재정여력 제한

재정지출 확대에는 득실이 있다. 올해 성장 둔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를 감안하면, 내년 지출을 늘리는 선택은 일정부분 타당하다.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한 첨단기술 투자 확대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제는 늘어난 지출로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부담이 커지는 국면이라고 생각한다[그림12~14].

실질적인 부채 부담 가중

첫째,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뉘는데,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으로 갚아야 하고, 금융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있어 이를 활용해 상환할 수 있다(적자보전용 국채는 적자성 채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금융성 채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는 각각 연평균 10.2%, 3.1% 증가한다[그림15]. 채무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이 더 커진다는 의미다[그림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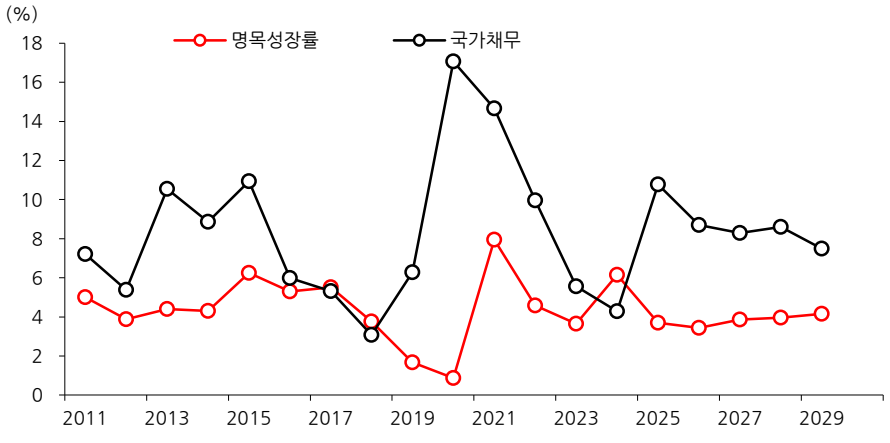
가파른 부채 증가

둘째,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3.4%로 선진국 37개국 평균(72.7%)보다 낮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부채비율이 7.5%p 상승(45.9%→53.4%)해 증가 속도는 상위권이다[그림17]. 민간부채를 포함한 총부채 비율 또한 2019년 이후 25.8%p 상승했다(222.2%→248.0%). 선진국 중에서 비율 상승폭이 가장 크다[그림18].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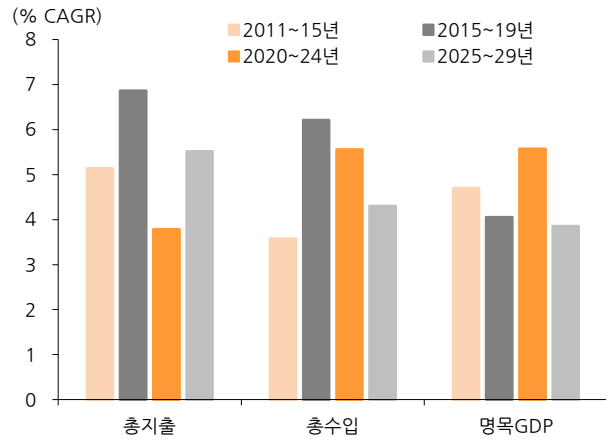
따라서 낮은 정부부채 비율이나 양호한 재정수지를 확장재정의 근거로 내세우기 어렵다. 지출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효율적인 지출(R&D 예산 내 중복 방지), 성장을 통한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동반돼야 재정확대가 지속 가능할 것이다.

[그림12] 국가채무 증가율과 명목성장률 격차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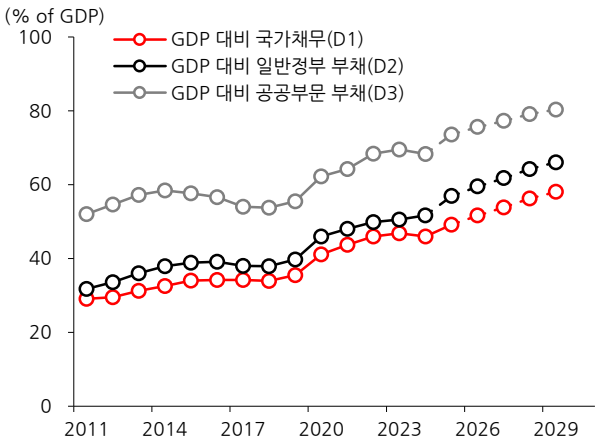
주: 2025~29는 기획재정부 전망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재정지출 증가율 상승, 재정수입 증가율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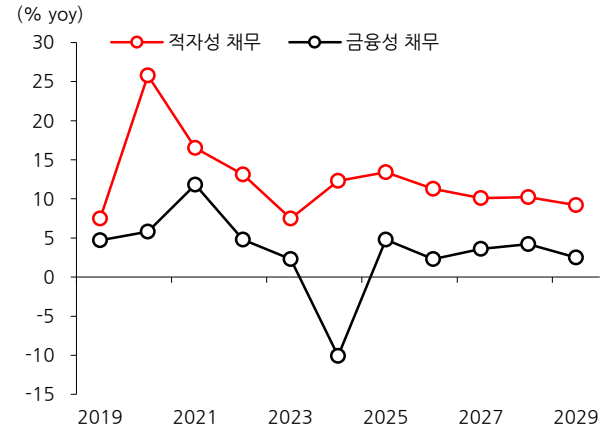
주: 2025~29년은 기획재정부 전망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성장 약해지면 실질적인 부채 부담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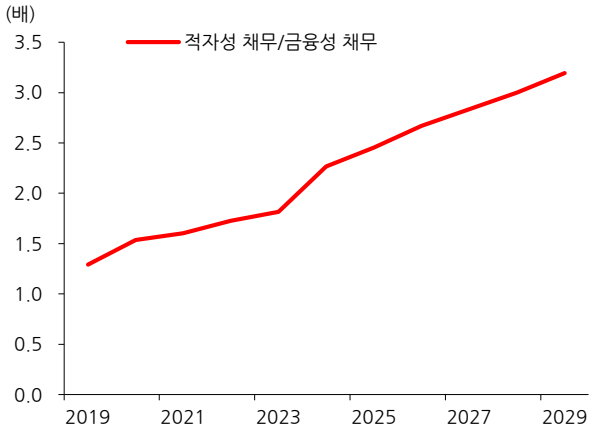
주: 2025~29년은 기획재정부 전망. D2와 D3 전망은 D1 증가율을 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적자성 채무 증가율이 금융성 채무 증가율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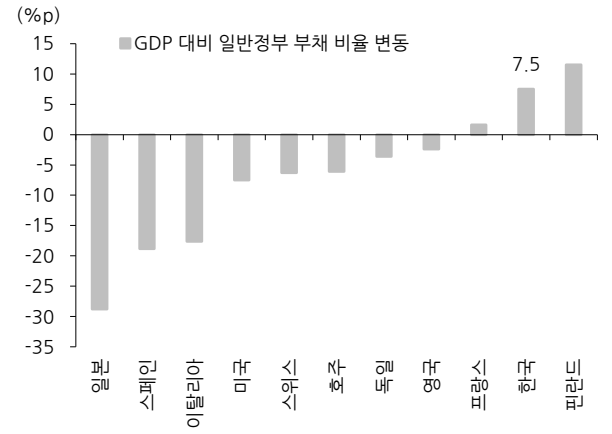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적자성 채무/금융성 채무: 2019년 1.3배→2029년 3.2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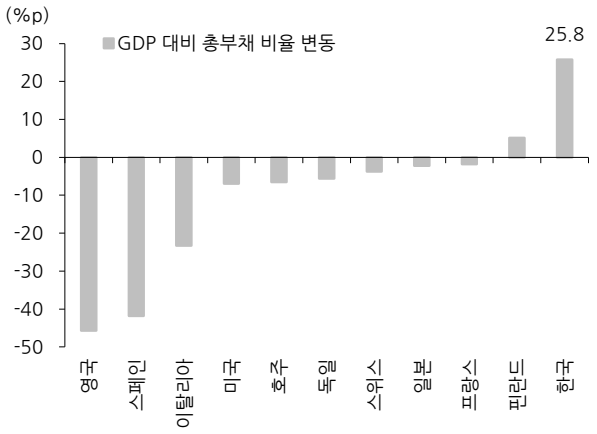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정부부채 증가폭이 큰 한국



주: 2020년 대비 2025년 비율
자료: IMF,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가계 및 기업부채를 포함한 총부채 증가속도도 최상위



주: 2019년 대비 2025년 1/4분기 비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BI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026 년 성장경로

내년 2%대 성장 전망

2026년 한국은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기존 전망 1.9% 상향조정). 견조한 반도체 수출에 더해질 非반도체 수출, 재정자극 강화, 글로벌 제조업 반등에 따른 투자 회복 등이 2%대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기저효과가 반영될 상반기에 높고, 전기대비 성장률은 2/4분기와 3/4분기에 0.5%를 상회할 전망이다[그림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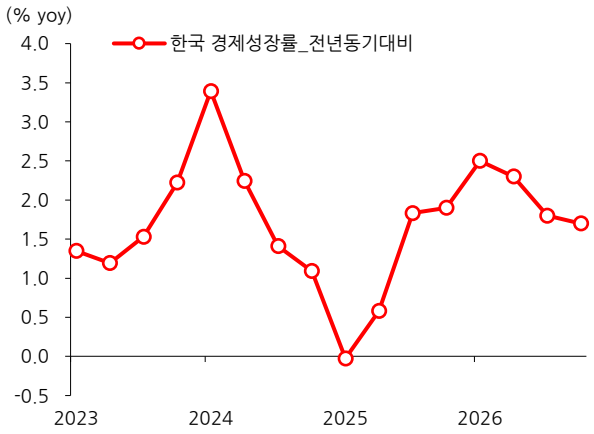
非반도체 수출 반등 기대

반도체 수출은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출 호조에 범용 메모리가 더해지고 있다. 메모리반도체 수출단가와 물량이 동반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양호한 흐름이 상당기간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非반도체 수출은 2/4분기 이후 회복세가 강해질 것으로 본다[그림21]. 관세 불확실성 완화와 글로벌 제조업 반등과 같은 우호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완만한 내수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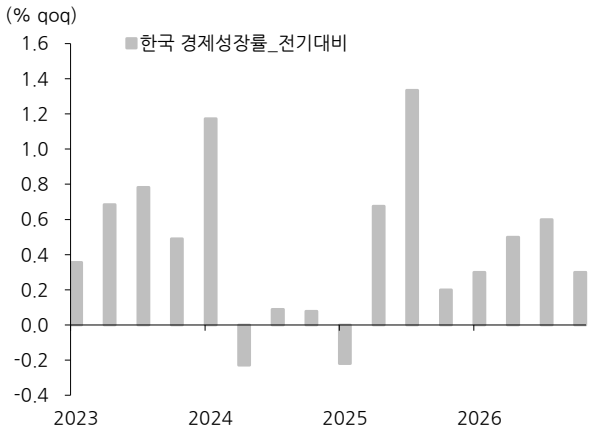
소비는 추경 효과가 약해져도 안정적일 것이다. 수출 강세와 기업실적 개선, 확장재정, 자산가격 상승 등이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다. 개인카드 승인금액 증가율 상승과 심리지수 반등은 소비 하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하고, 내년 기업실적 개선과 재정지출 확대는 소비 회복세 강화 전망을 지지한다[그림23,24]. 설비투자는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 강화, 기업들의 대출수요 확대, 제조업 회복이 증가를 주도할 전망이고, 건설투자는 지난해 늘어난 주택 분양 및 건축수주가 반영되는 구간이다[그림25,26].

[그림19]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상반기가 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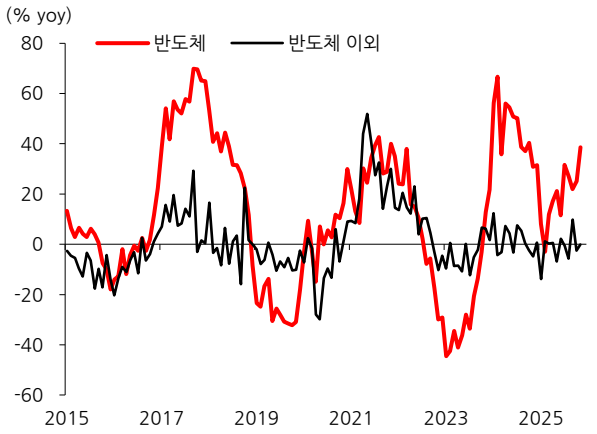
주: 4Q25 이후는 당사 전망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0] 전기대비 성장률은 2/4 분기와 3/4 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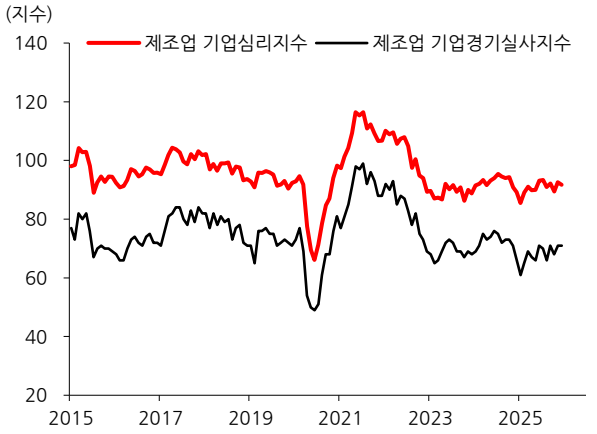
주: 4Q25 이후는 당사 전망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1] 非반도체 수출 반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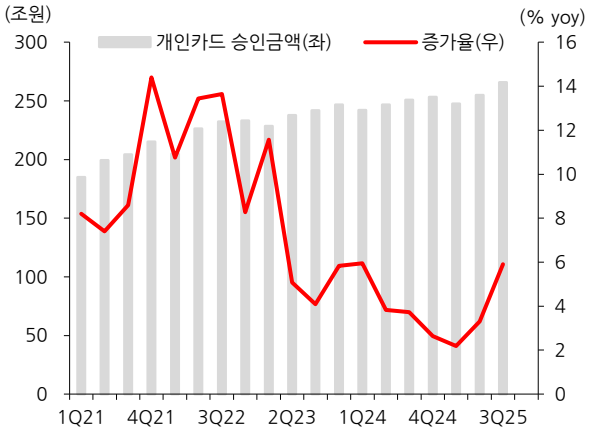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2] 기업심리도 완만하게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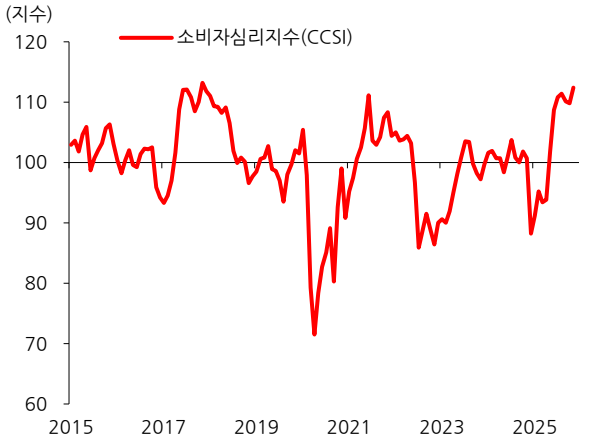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3] 소비 회복세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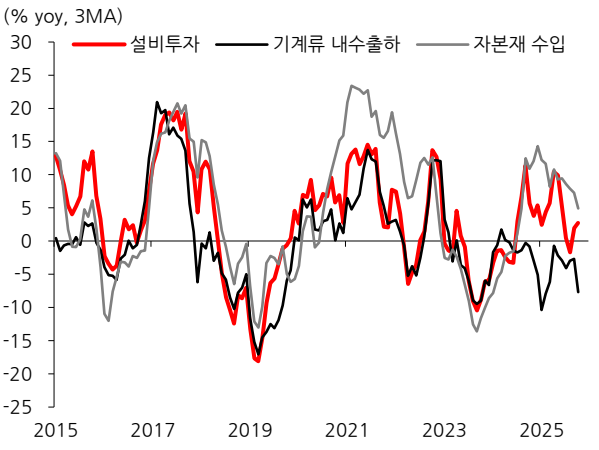
자료: 여신금융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4] 소비심리 개선 흐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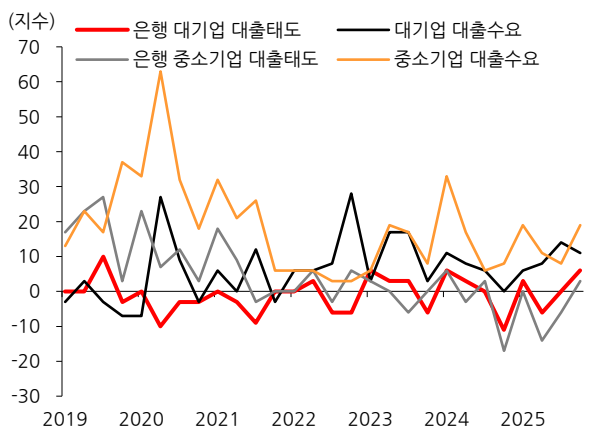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5] 정부 지원과 수출 회복은 설비투자에 우호적인 변화



자료: 통계청, 관세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6] 기업 대출수요 증가, 은행 대출태도 완화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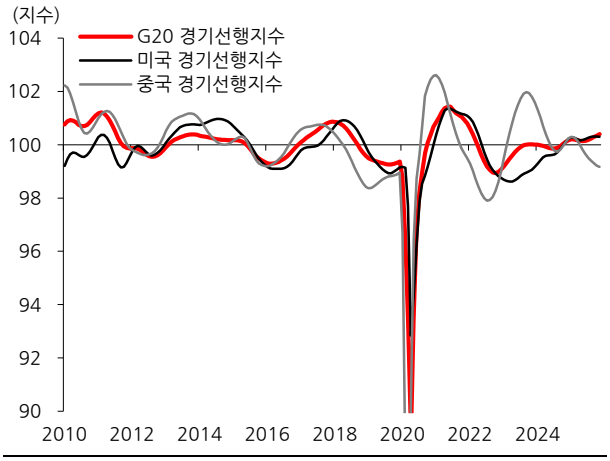
Ⅲ. Hanwha's Macro View

[표1] Hanwha's Macro View

구분	단기(4Q25)	중기(2026년)
글로벌	-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 - 제조업 경기 저점 통과 조짐	- 제조업과 투자가 회복 주도 - 성장에 우호적인 정책 기조 유지
한국	- 반도체 수출 강세 지속 - 非반도체 수출 회복 더딤	- 수출 7% 내외 증가하면서 성장 주도 - 2%대 성장 가능
미국	- 실물지표가 완만한 경기 둔화 전망을 뒷받침 - 금리 인하 이후에도 연준 내 이견 여전	- 무난한 소비, 강해지는 투자 - 1% 중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
중국	- 정책 부재와 대외수요 둔화로 더딘 회복 - 4% 중반대 성장 예상	- 산업 구조조정 기조 강화 - 성장률 하락 불가피하지만, 생산성 개선 기대
유로존	- 금리 인하와 물가 안정 효과로 완만한 회복 - 탄력적인 모멘텀은 부재	- 투자 확대로 1% 초반 성장 -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 효과 기대
FX	- 원/달러 환율 1,450원 내외 등락 - 연말 환율 1,400원 중반	- 완만한 달러화 약세 - 2026년말 원/달러 환율 1,400원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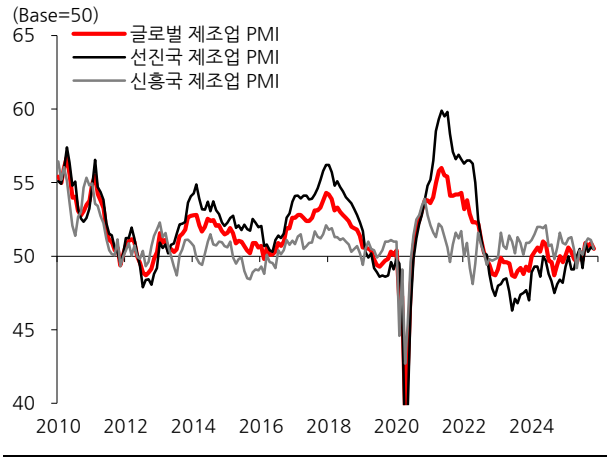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7] OECD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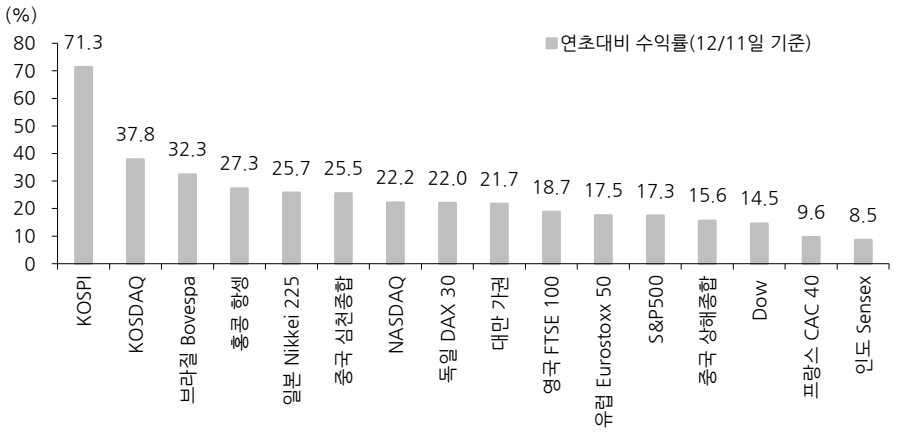
자료: OECD,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8] 제조업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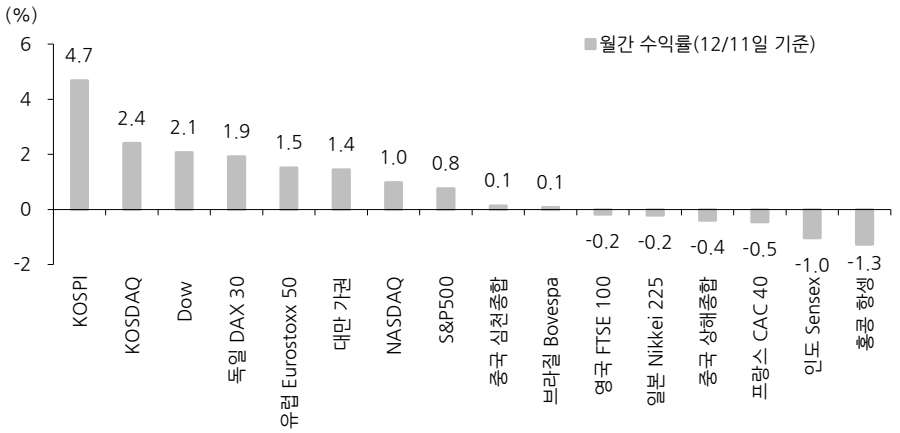
자료: S&P Global,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9] 주요국 주식시장 연초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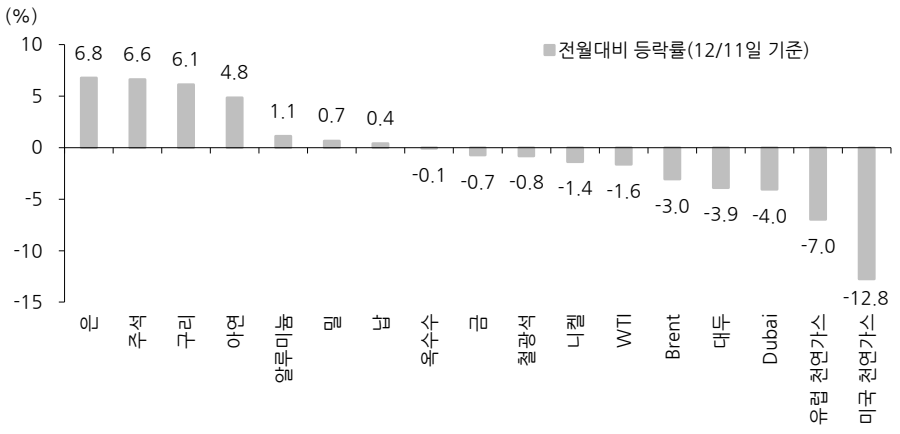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0] 주요국 주식시장 월간 수익률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1] 주요 원자재 가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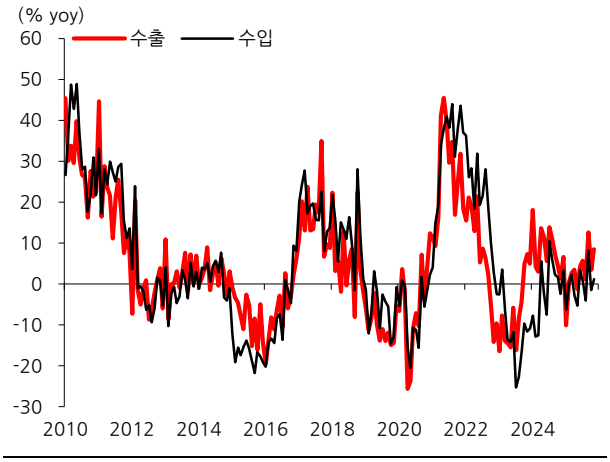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아쉬운 非반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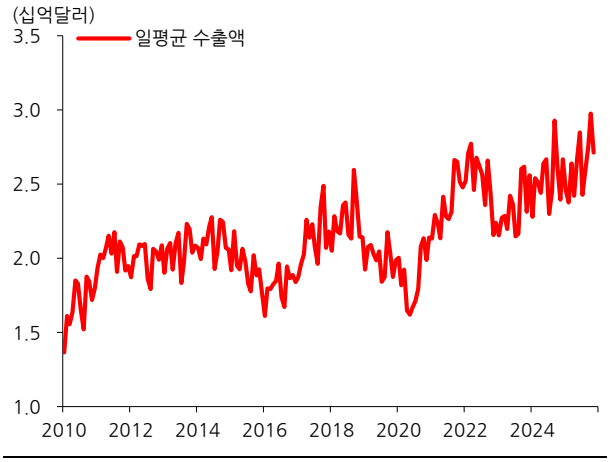
- 11월 일평균 수출 27.1억 달러로 양호
- 다만, 非반도체 수출은 부진. 메모리반도체가 수출 강세를 주도
- 연준 금리 인하에도 원/달러 환율 하락 제한될 전망

[그림32] 한국 수출 +8.4%, 수입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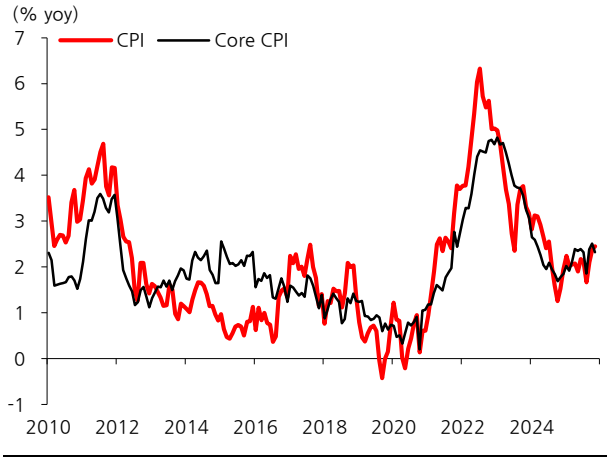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3] 일평균 수출 27.1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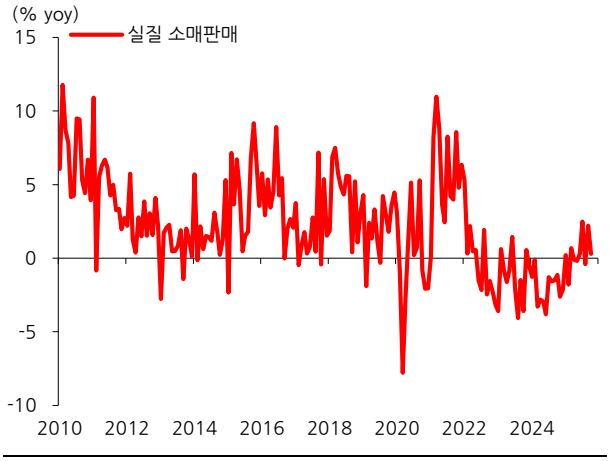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4] 한국 소비자물가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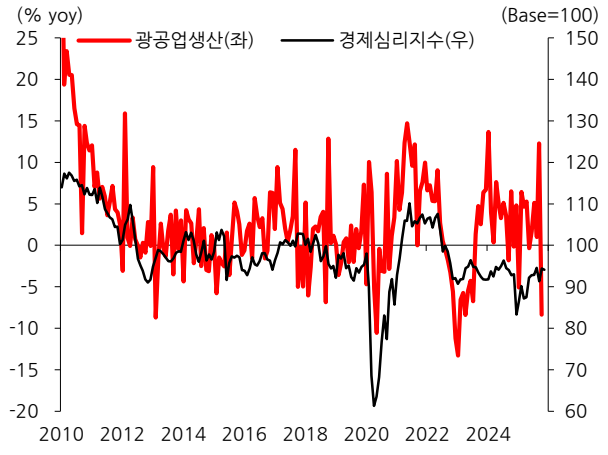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5] 한국 소매판매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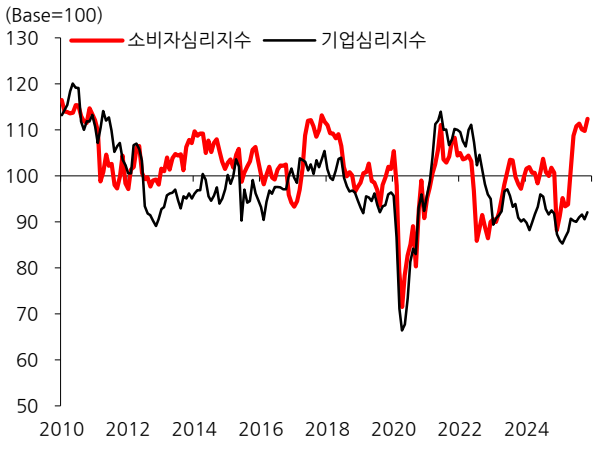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6] 한국 광공업생산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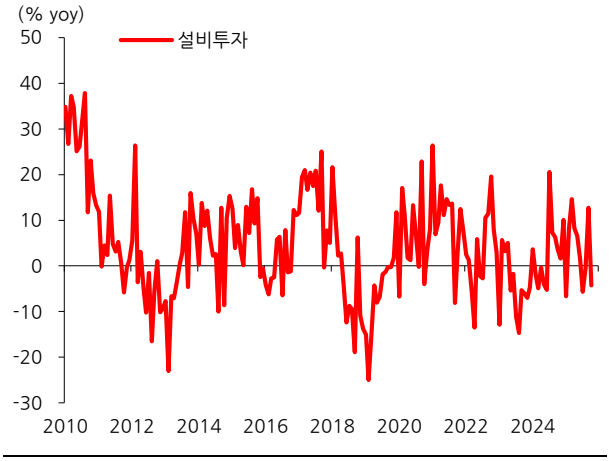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7] 한국 소비자심리지수 1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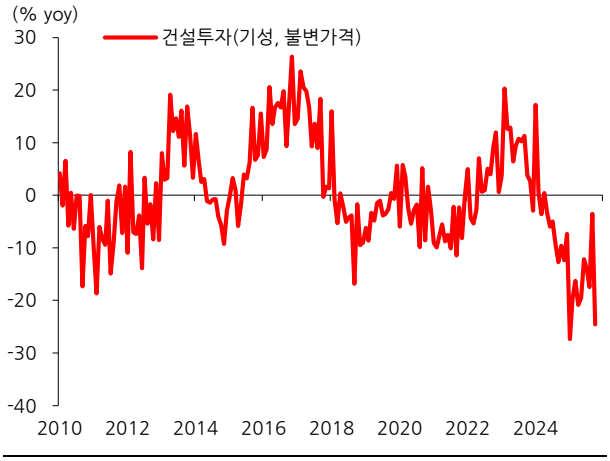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8] 한국 설비투자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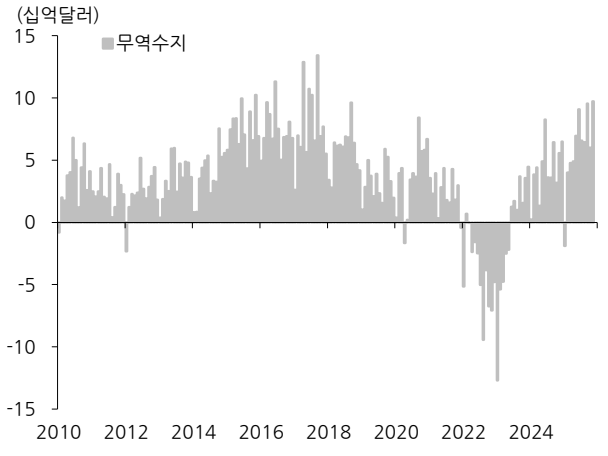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9] 한국 건설투자 -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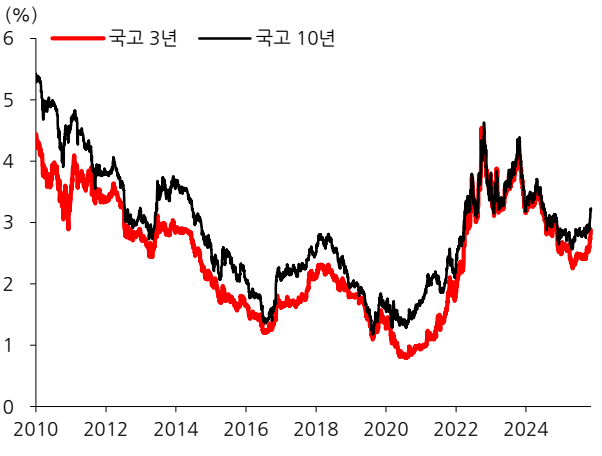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0] 한국 무역수지 +97.4 억 달러



자료: 관세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1] 국고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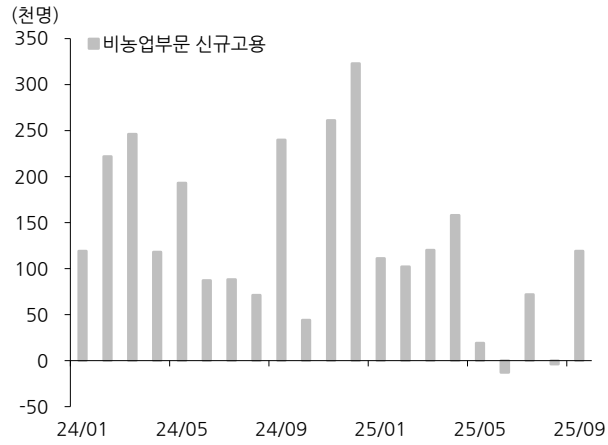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데이터 블랙아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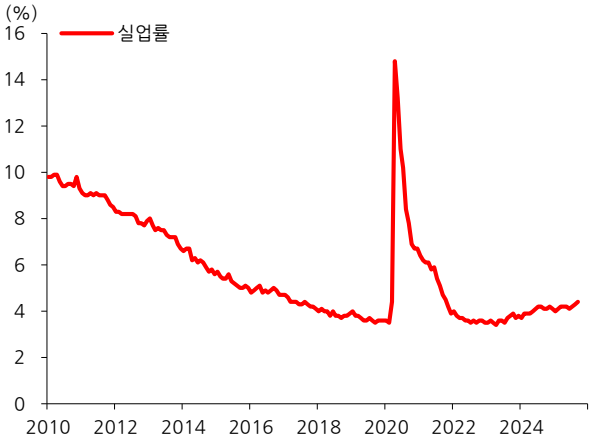
- 11월 경제지표는 완만한 고용 둔화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할 전망
-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지만, 내년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
- 통화정책에 대한 연준과 시장의 격차 축소는 내년 1/4분기에 가능할 것

[그림42] 9월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 +11.9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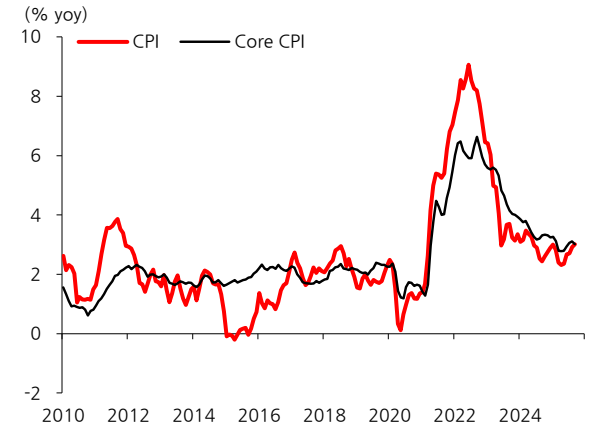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3] 9월 미국 실업률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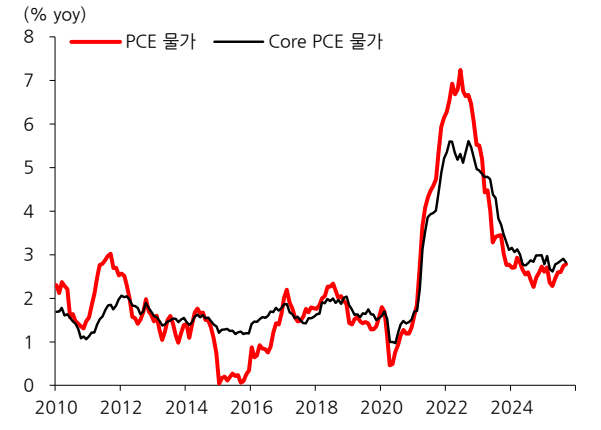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4] 9월 미국 소비자물가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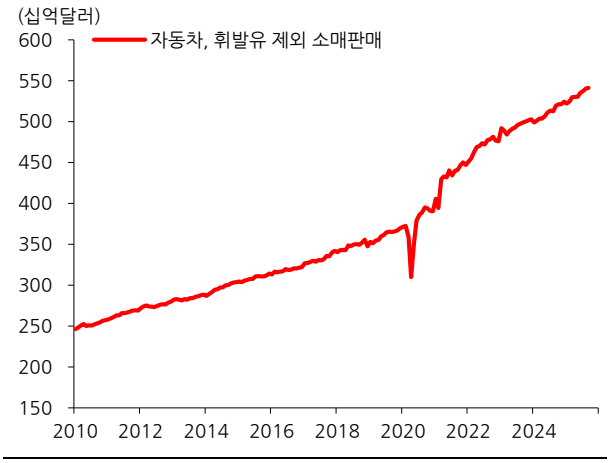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5] 9월 PCE 물가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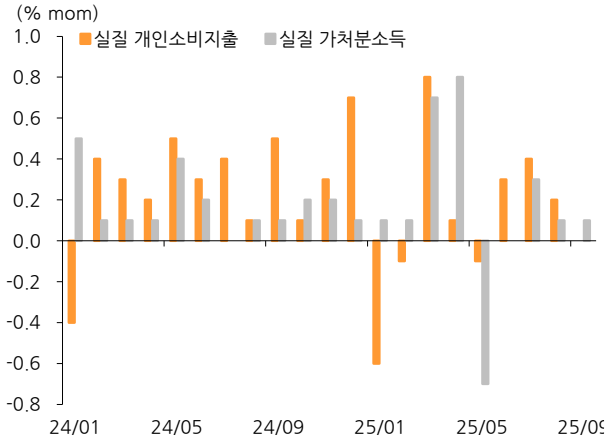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6] 9 월 미국 자동차/휘발유 제외 소매판매 MoM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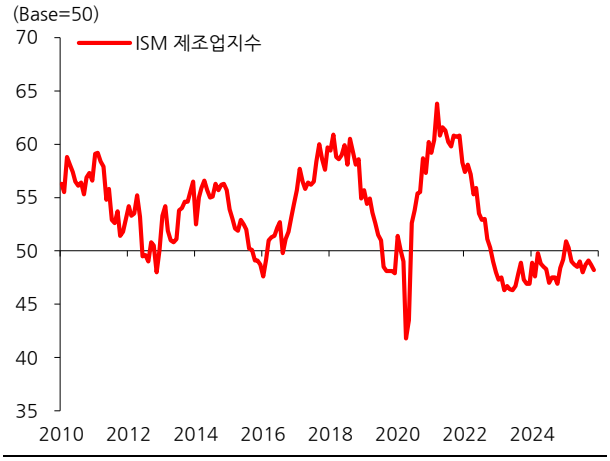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7] 9 월 미국 실질소비 +0.0%, 가처분소득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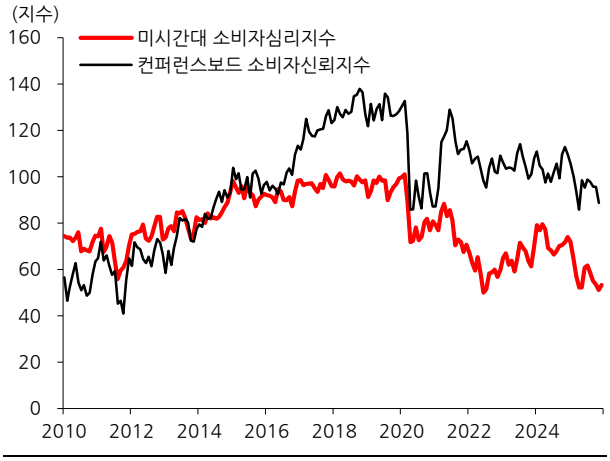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8] ISM 제조업지수 4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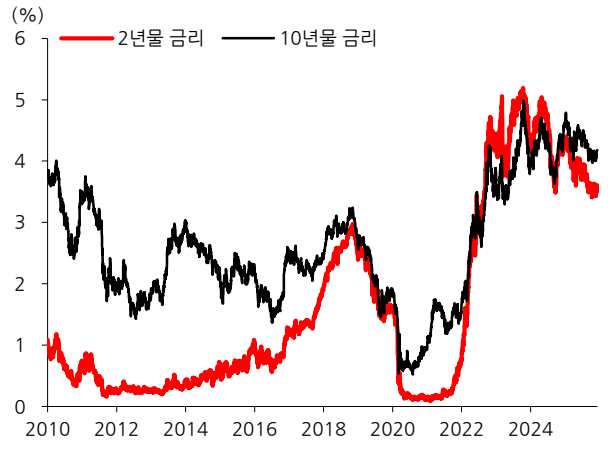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9]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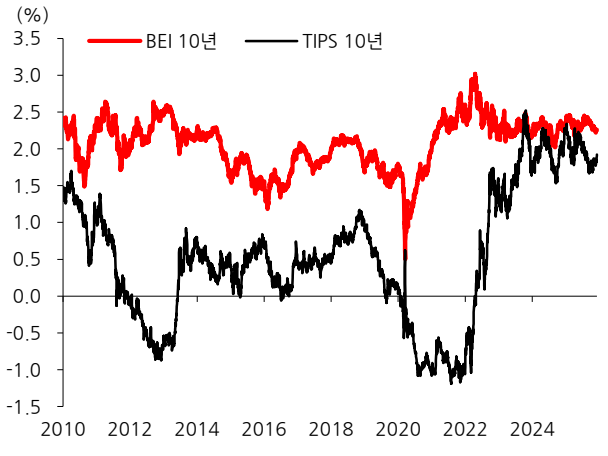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0] 미 국채 2 년, 10 년 금리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1] BEI 및 T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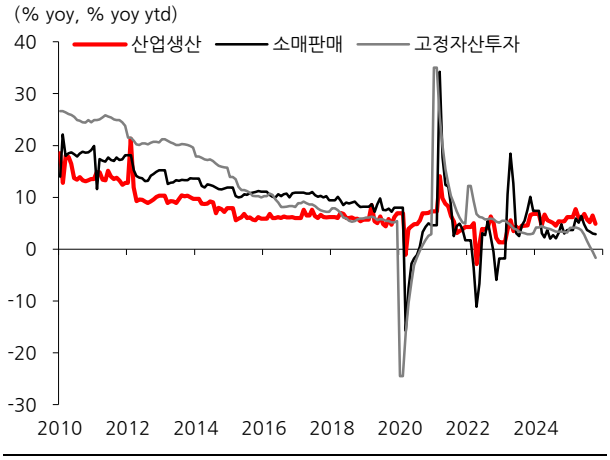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부족한 모멘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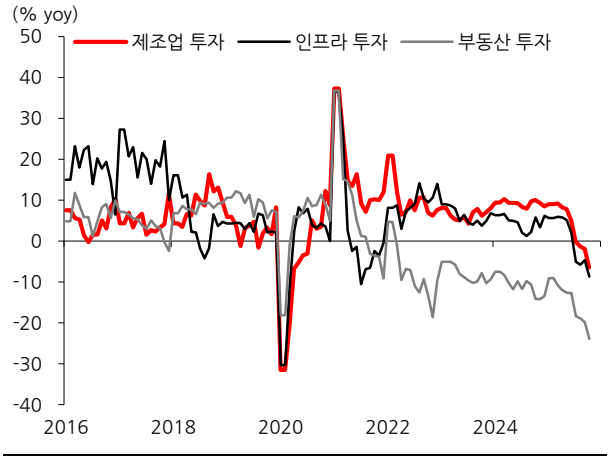
- 10월 실물지표는 대체로 부진.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증가세 둔화
- 연말 정책 공백과 대외수요 둔화도 부담
- 경기 상방 및 하방 압력이 모두 제한되는 흐름 지속

[그림52] 중국 산업생산 +4.9%, 소매판매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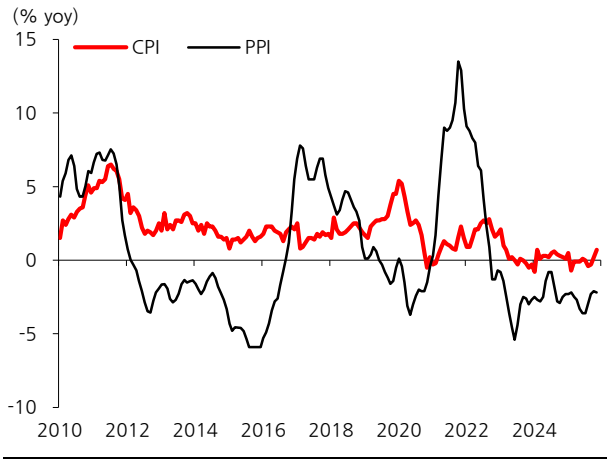
자료: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3] 중국 인프라투자 -8.7%, 부동산투자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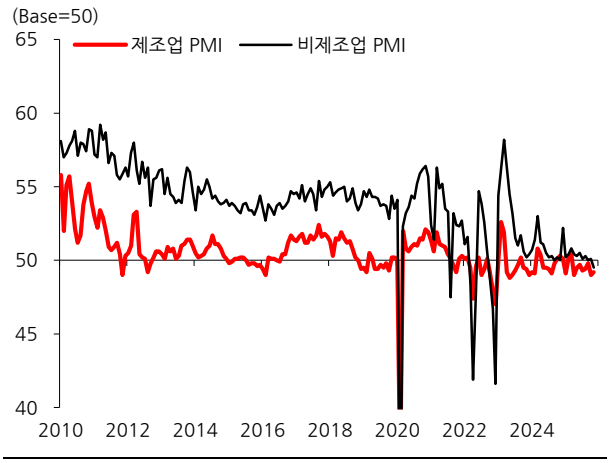
자료: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4] 중국 소비자물가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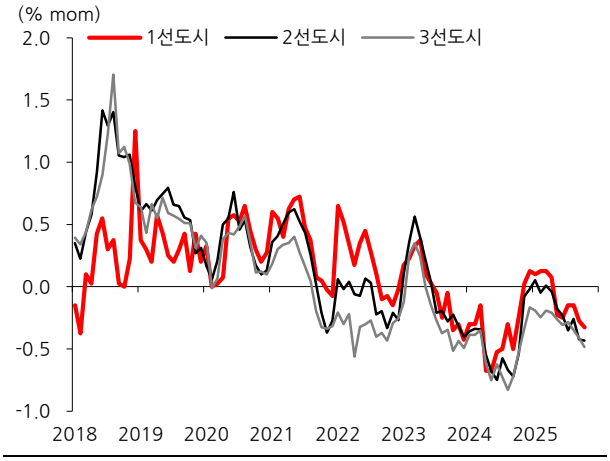
자료: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5] 중국 제조업 PMI 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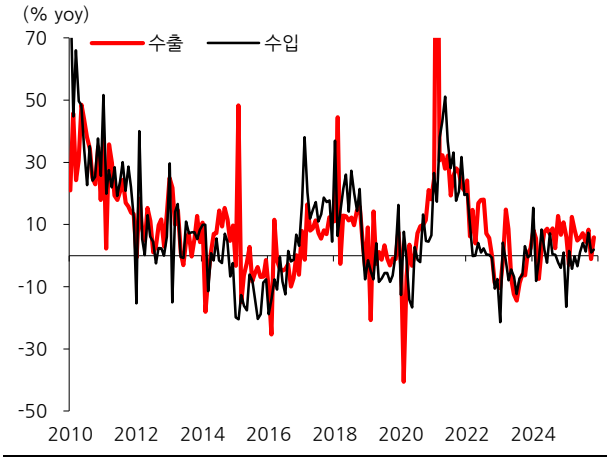
자료: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6] 중국 주택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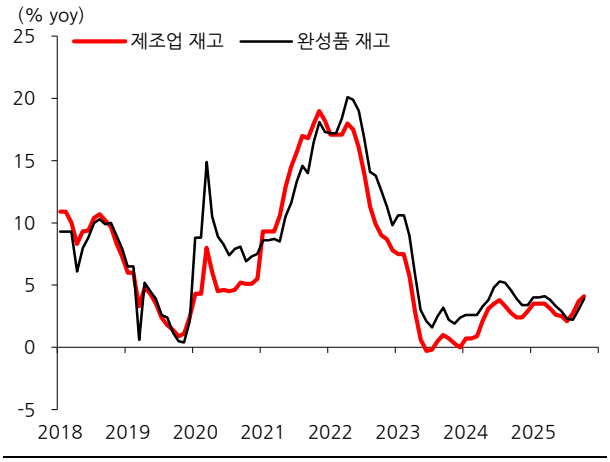
자료: CEIC,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7] 중국 수출 +5.9%, 수입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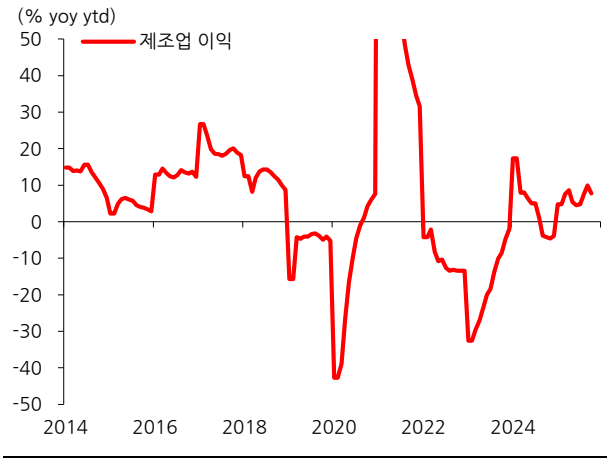
자료: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8] 중국 제조업 재고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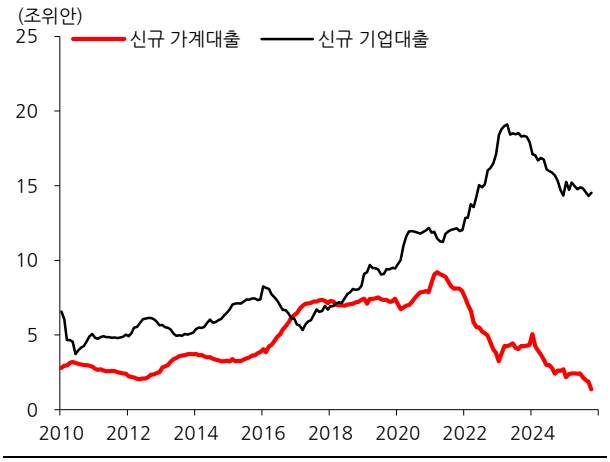
자료: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9] 중국 제조업 이익 +7.7%



자료: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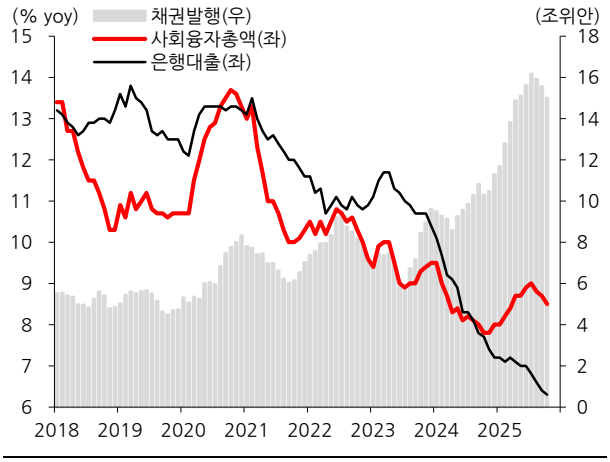
[그림60] 중국 가계 및 기업대출



주: 12개월 이동합

자료: The People's Bank of China,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1] 중국 사회융자총액 +8.5%



주: 채권발행은 12개월 이동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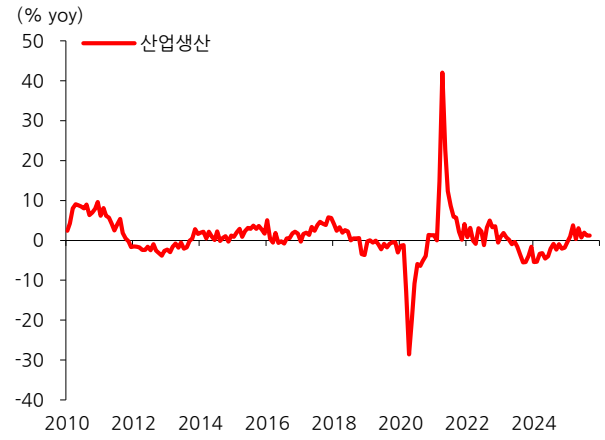
자료: The People's Bank of China,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유로존

무난할 4/4 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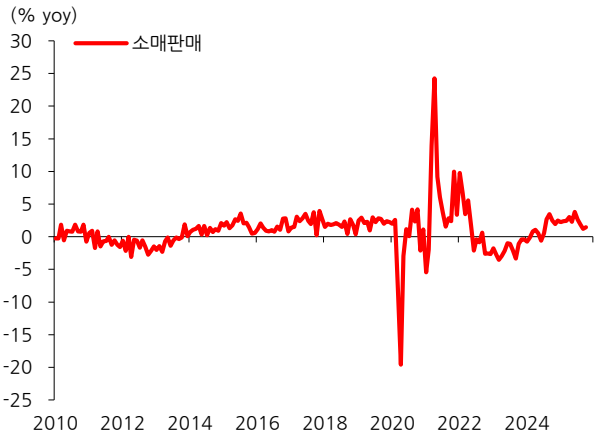
-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양호
- 민간대출 증가율 상승 흐름 지속
- 시장금리 상승은 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림62] 유로존 산업생산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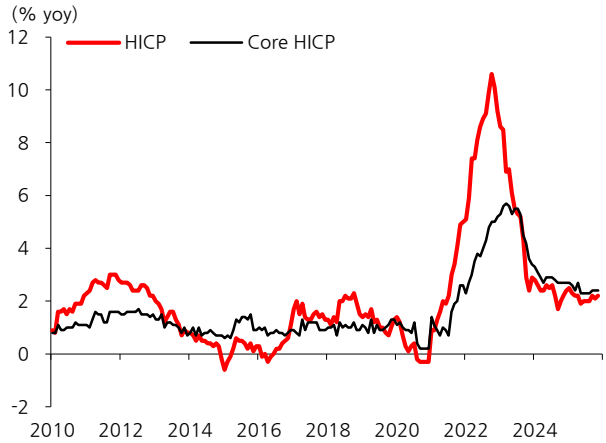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3] 유로존 소매판매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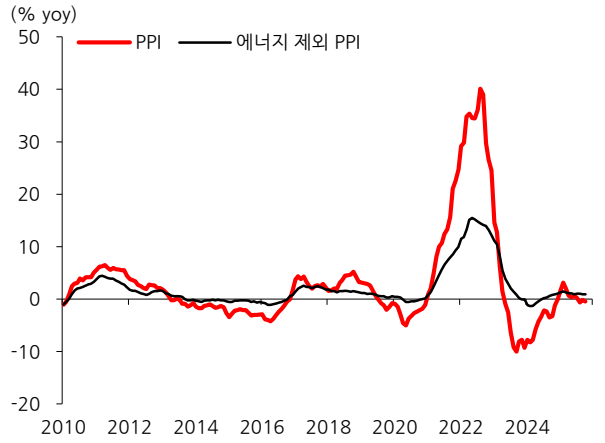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4] 유로존 소비자물가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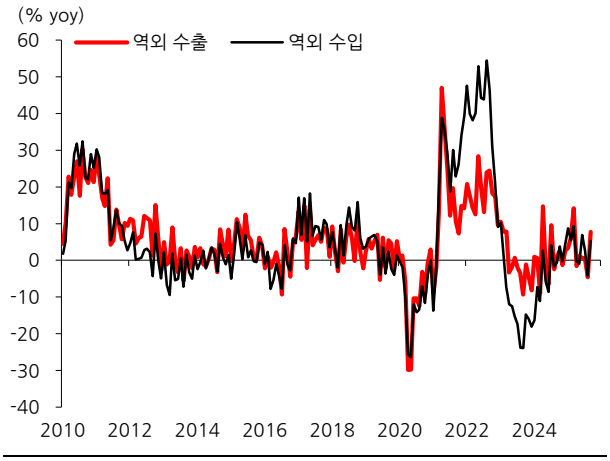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5] 유로존 생산자물가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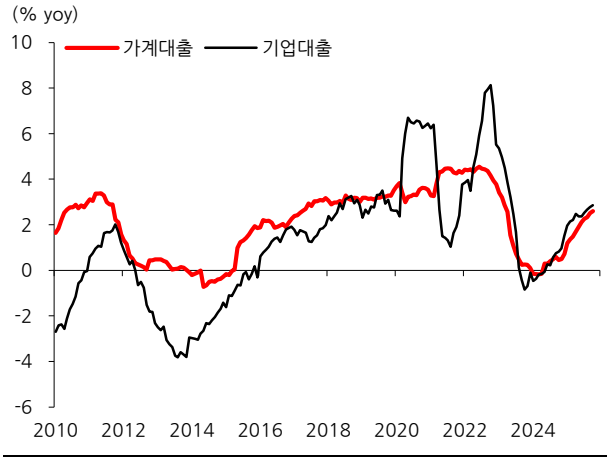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6] 유로존 수출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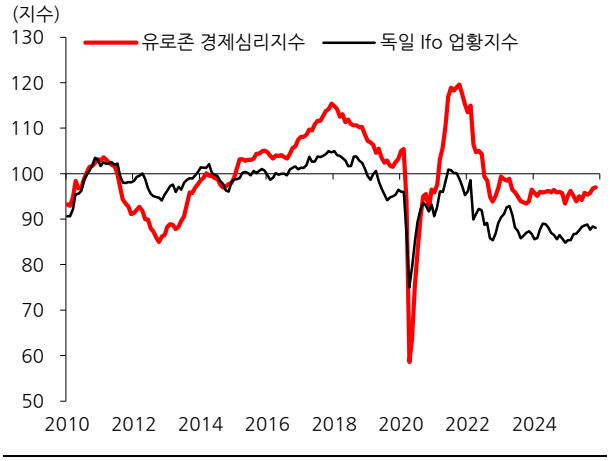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7] 유로존 가계대출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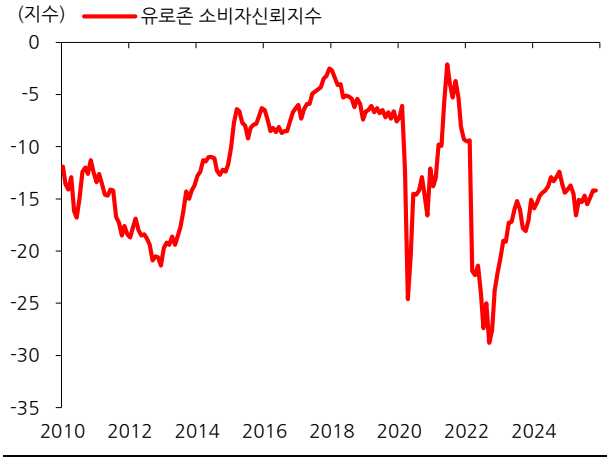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entral Bank,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8] 유로존 경제심리지수 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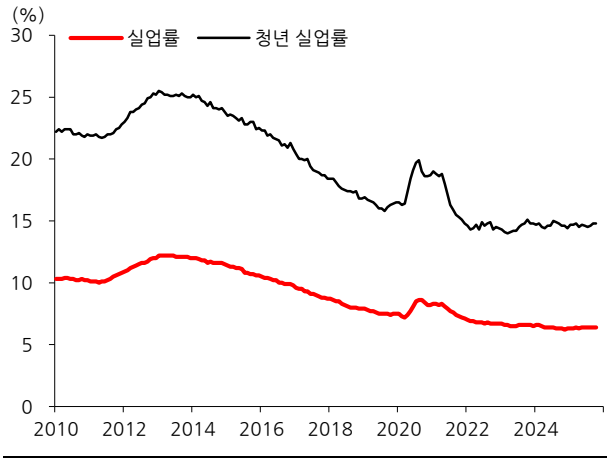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 Ifo Institute,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9]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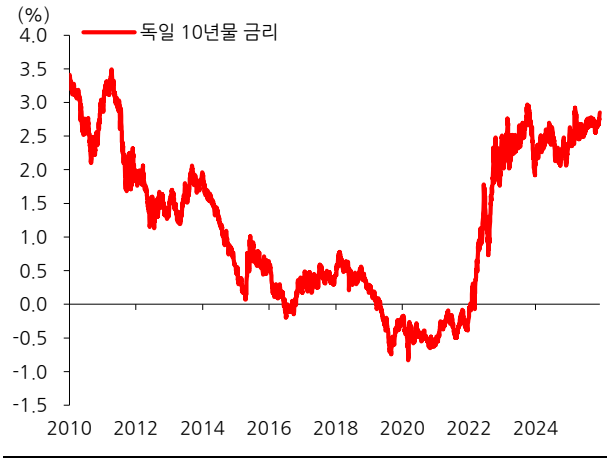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0] 유로존 실업률 6.4%



자료: Eurostat,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1] 독일 10 년물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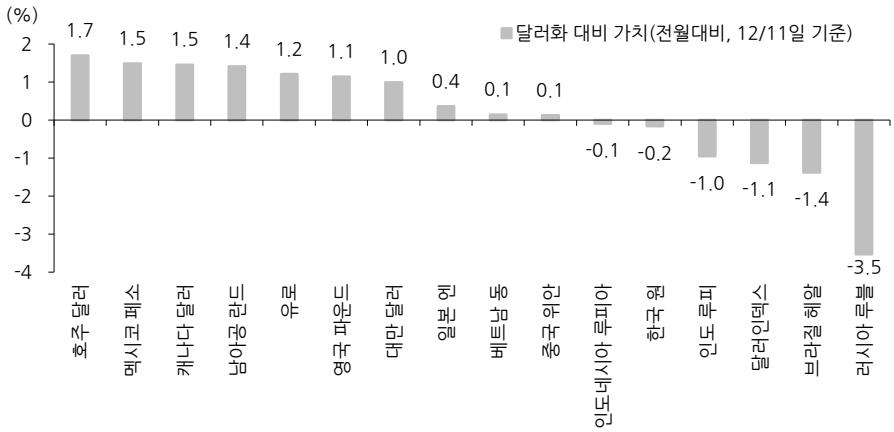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환율

버티는 달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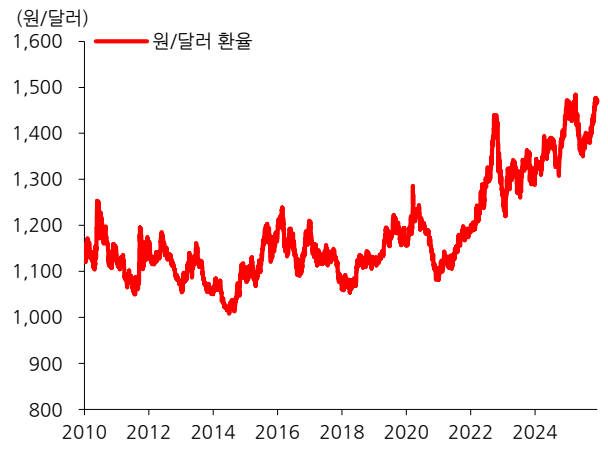
- 달러화는 FOMC를 기점으로 점차 약해질 전망
- 12월 금리 인하는 달러화 약세 요인
- 다만, 관세의 물가 영향 확인되기 전까지는 달러화 약세 폭 제한

[그림72] 주요국 통화가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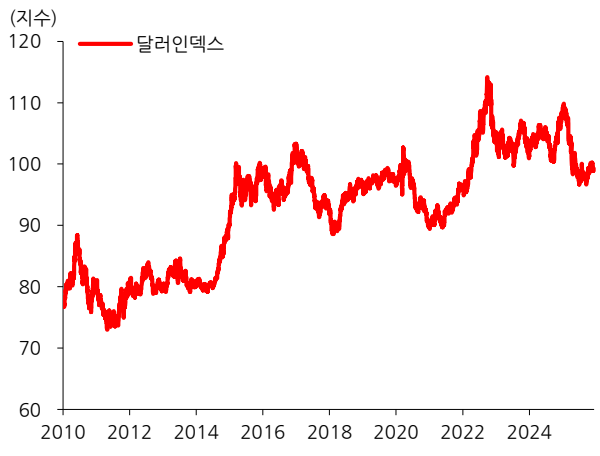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3] 원/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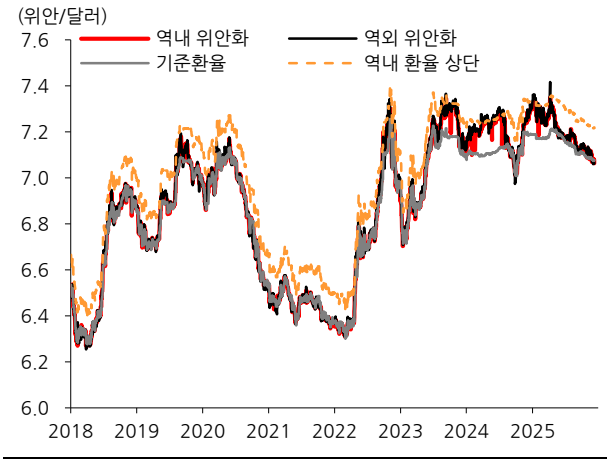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4] 달러인덱스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5] 위안/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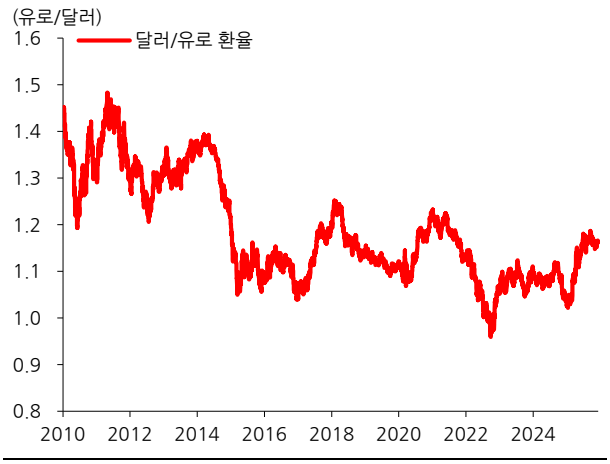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6] 엔/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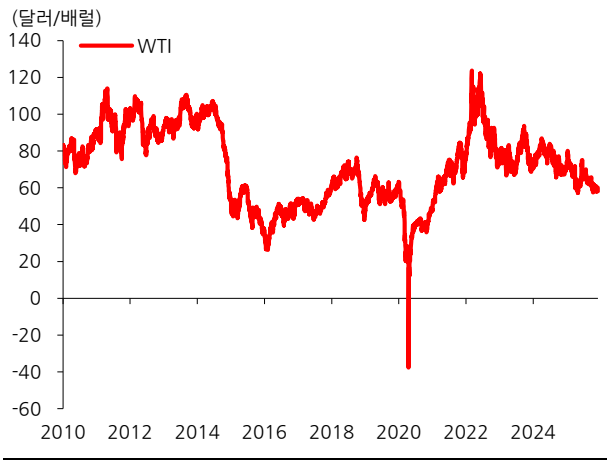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7] 달러/유로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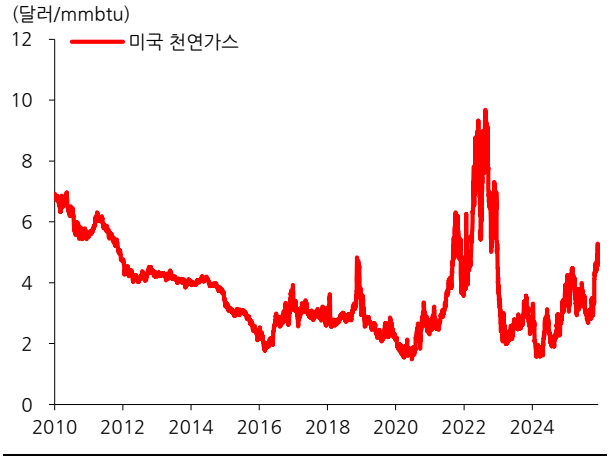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8] W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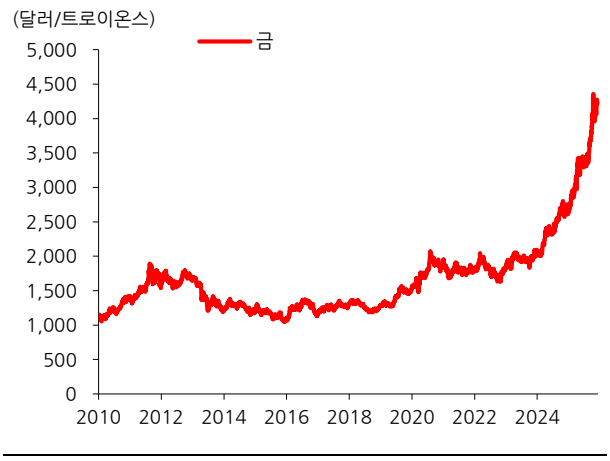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9] 미국 천연가스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0] 금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IV. Economic Calendar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1 (한) 12 월 수출/입 YoY (8.4%/1.2%) (미) FOMC 의사록	2
5 (미) 12 월 ISM 제조업 PMI (48.2)	6	7 (유) 12 월 HICP YoY (2.2%) (미) 12 월 ISM 서비스업 PMI (52.6)	8	9 (유) 11 월 소매판매 MoM (0.0%) **(미) 12 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119K)** **(미) 12 월 실업률 (4.4%)** **(미) 12 월 시간당 평균임금 YoY (3.8%)**
12	13 **(미) 12 월 CPI YoY (3.0%)** **(미) 12 월 Core CPI YoY (3.0%)**	14 (중) 12 월 수출입 YoY (5.9%/1.9%) (미) 11 월 PPI YoY (2.7%)	15 **(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유) 11 월 산업생산 YoY (1.2%)	16
19	20 (중) 1 월 1 년 만기 LPR (3.00%) (유) 1 월 ZEW 경제심리지수 (25.0)	21	22	23 (유) 1 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49.6) (유) 1 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53.6)
26	27	28	29 **(미) FOMC 회의**	30 (유) 4/4 분기 GDP YoY (1.4%)

주1: 한국시간 기준

주2: 괄호 안은 이전치. 직전 수치 없을 경우 그 이전치(12/12일 기준)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MSCI

The MSCI sourced information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Inc. (MSCI).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of MSCI, this information and any other MSCI intellectual property may not be reproduced, redisseminated or used to create any financial products, including any indices.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on an "as is" basis. The user assumes the entire risk of any use made of this information. MSCI, its affiliates and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ereby expressly disclaim all warranties of originality, accuracy, completeness,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with respect to any of this information. Without limiting any of the foregoing, in no event shall MSCI, any of its affiliates or any third party involved in, or related to, computing or compiling the information have any liability for any damages of any kind. MSCI and the MSCI indexes are services marks of MSCI and its affiliates.

⊙ GICS

The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GICS) was developed by and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MSCI Inc. and Standard & Poor's. GICS is a service mark of MSCI and S&P and has been licensed for use by [Licensee].